

미국상공회의소·한미재계회의 공동초청 오찬연설

존경하는 토머스 도노휴 미 상공회의소 회장,

모리스 그린버그 한·미 재계회의 회장,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처럼 세계 경제를 이끌고 계시는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성대한 오찬을 베풀어 주신 미 상공회의소와 한·미 재계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80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원칙과 신뢰', '투명과 공정',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을 국정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신뢰'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뢰'야말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간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년 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국가신인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후 한국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큰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을 하고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협조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도움도 컸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체질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훨씬 튼튼해졌습니다. 경제구조도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작년에 6.3%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입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제 투자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의 첫번째 요건은 한국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경제 전 분야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고, 이에 맞게 경제 현실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업 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감시기능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성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저(低)평가되어 있는 한국의 주식시장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원칙과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도 바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내외국인의 구분도 없습니다. 세계를 향해 활짝 열린 시장이 있을 뿐입니다.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기업이 성공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경제는 역동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혁신정책'도 투자 확대를 결정짓는 매력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를 검토하는 많은 분들이 특별히 노사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사간 대립과 갈등은 한국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변화해 갈 것입니다. 외국인기업의 노사분규는 이제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노사문제에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충실해 왔습니다. 노동운동이 부당하게 탄압받을 때는 인권수호 차원에서 노동자의 편에 섰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이 신장된 다음에는 노사간 조정과 중재에 나서 타협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을 가지고 '원-원'의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원칙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협력의 노사문화가 뿌리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관행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권리·의무까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입니다.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해소해 갈 것입니다. 외국인의 생활여건도 고국에 사는 것과 큰 차이를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의료와 자녀 교육,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지정될 '경제자유구역'은 바로 이러한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북한의 핵문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시 대통령도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북핵 문제의 해법에 관해 한·미 양국은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베이징 3자 대화'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 준 미국의 노력과 인내를 높이 평가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긴밀한 한·미 공조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

로 해결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내일 부시 대통령과 만나서 앞으로 제기 될 여러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저는 북핵 문제가 당장 해결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 나간다면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적인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한·미 동맹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미 동맹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면서 경제를 도약시키는 데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관계는 상호존중의 토대 위에서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보다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는 지난 50년보다 앞으로의 50년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미 양국이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완전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WTO와 APEC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도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은 '동북아의 비즈니스 허브' 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기회' 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거대 경제권인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넓은 시장과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과 같은 충분한 물류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보화 기반과 IT 역량도 세계 선두권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 지식기반 경

체를 선도해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국은 '동북아의 물류와 생산과 금융의 허브'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여는 데 중추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와 태평양경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국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의 이러한 미래에 참여하여 열매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미 양국은 이제 서로에게 너무도 중요한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일 뿐만 아니라 최대 투자국입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일곱번째 교역상대국이자 여섯번째 수출시장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오랜 교역상대국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더 많은 미국 상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의 여지는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양국간 투자와 교역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서 안보 위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뛰어넘어 포괄적인 동맹관계를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 그 주역입니다. 정부간 경제협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업인간의 실질적인 협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들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회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 서입니다.

저의 이번 방문이,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가 양국 경제계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우리 정부는 두 나라 경제계간의 투자와 교역, 그리고 기술협력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

대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공동의 번영을 일구어 나갑시다.

여러분의 건강과 한·미 양국 경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머지않아 서울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